

번호 07-4

제 목	국문	반정량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타당도 평가 - 지질 및 지방산의 섭취를 중심으로 -			
	영문	Validity assessment for Korean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심지선, 김미양, 오경원, 윤지영*, 남정모*, 서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영문	Jee Seon Shim, Mi Yang Kim, Kyung Won Oh, Jee Young Yoon*, Chung Mo Nam*, Il Su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전 공 의 ()		포스터 ()
환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2000년 2월				

1. 연구 목적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은 식사섭취와 질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방법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사섭취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어 일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만성질환과 식사와의 관계 규명에 대한 적절한 조사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만성질환과 평상시의 식사(지질과 지방산의 섭취)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타당도를 본 연구에서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한 30세 이상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1차 조사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식품섭취빈도조사와 동시에 평일 2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3일 동안의 식사기록을 조사하였다(222명). 2차조사는 1999년 11월-12월까지 1차 조사에 응답을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3일 동안의 식사기록을 조사하였다(91명). 이 때 직접 면접에 의한 식품섭취빈도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3일 동안의 식사기록 자료중 2끼 이상을 불성실하게 기입한 경우(1차조사 16명, 2차조사 13명)를 제외한 78명(남자 31명(평균 나이 48세), 여자 47명(평균 나이 47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영양소 뿐만 아니라 다불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및 포화지방산에 대하여 식품섭취빈도법과 1차 식사기록법과 2차 식사기록법의 평균 섭취량을 비교하였고, 다음으로 두 방법간의 상관관계를 Spe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또한 각 방법에 의한 개개 영양소의 섭취량 및 영양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식품섭취빈도조사법과 1차, 2차 식사기록법에 의한 평균 영양소의 섭취량을 비교하였을 때, 식품섭취빈도법에 의한 에너지, 당질, 지질 및 단백질 뿐만 아니라 개개 지방산의 섭취량이 1차, 2차 식사기록법에 의한 섭취량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1차 식사기록법과 2차 식사기록법의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식품섭취빈도조사법과 1차, 2차 식사기록법의 상관계수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높았고, 두 방법간의 상관계수가 식사기록법의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의 경우는 1차 식사기록법에 비하여 2차 식사기록법에서 상관계수가 높았으며 그 범위는 영양소에 따라 0.14-0.60이었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1차 식사기록법과 2차 식사기록법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2차(0.37-0.54)에 비하여 1차 식사기록법(0.37-0.54)의 상관계수가 높았다. 특히 상관계수가 지질의 경우 남자 0.43, 여자 0.53으로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산의 경우 다불포화지방산의 경우는 비교적 상관계수가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포화지방산(남자 0.40, 여자 0.41)과 단일불포화지방산(남자 0.42, 여자 0.42)의 상관계수는 높은 경향이었다. 다음으로 일반 영양소와 지방산에서 차지하는 식품의 섭취 기여정도(절대 섭취량, 영양소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식품섭취빈도법과 1차, 2차 식사기록법에서 유사했다.

4. 고찰

식품섭취빈도법과 식사기록법의 상관성에 관한 본 연구에서, 에너지, 당질, 지질 및 단백질의 경우 국내에서 보고된 여러 연구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국내에서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지질 및 지방산의 상관계수가 높았다. 또한 영양소의 섭취량 및 에너지에 대한 섭취비율이 국민영양조사결과를 포함한 최근 보고되고 있는 다른 연구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 식품섭취빈도 조사지가 개인의 평상시의 식사섭취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는 설문항목이 93항목으로 조사 시간이 비교적 길어 응답율과 응답에 대한 정확도를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타당성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역학 연구에 보다 적절한 식품섭취빈도법을 위한 설문항목 조정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